

朝鮮時代 宮闕空間의 觀念的 構成에 關한 研究

金永模* · 崔杞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A study on the ideological structure of palace space in Josun period

Kim, Young-Mo · Choi, Key-S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It has been general view to Josun palace space that the *Kyongbok* palace(景福宮), a main palace, is arranged with symmetric geometrical composition principles and, unlikely main palace, sub-palaces such as *Changduk*(昌德宮), *Changkyong*(昌慶宮) and *Kyonghee*(慶熙宮) palace are placed in organic structure adapted to natural land form.

With that view, there are no common factors to be considered between these palace, main and sub palace, in compositing principles of the space.

In this study, because of same ideological period, although there is external difference of that palaces, that common ideological principles are projected to these two palaces types through compositing space is assumed.

On this hypostasis, this study has been focused on finding the ideological principles projected to these palace space commonly.

As a result of study, some of them are considered as common principles;

Firstly, they are arranged in the text of contents through the way of naming to building, entrance and so on.

The second point is;

it is viewed that the *Oheung*(五行) and symmetric arrangement method based on *Oheung* are used in compositing of palace space.

The third is; through analyzing central space of *Kyongbok* palace, it is analyzed that oneness composition(合一的) principles, which are based on the theory of *Umyangoheong*(陰陽五行), are projected to different palace space commonly.

I. 序論

한 민족에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흐르고 있는 傳統을 찾아내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면, 우리나라 조경의 전통을 찾는 작업은 앞으로의 조경발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경에서 전통적인 것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과거의 조경에 대한 깊은 洞察과 解釋을 통하여 현재에의 계승 및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조경의 연구방향은 한 시대의 조영물은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집단 의식의 현상으로서, 그 시대 문화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회-내-주체 구성원으로서의 造營家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 시대 사회집단 의식의 표상이다. 따라서 전통 조영물은 단순히 외형적인 형태 이상으로 그 시대 사회문화의 조영논리나 규범등이 내재되어 있기가 쉽다.

한편, 전통조경을 대표하는 궁궐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그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주로 景福宮¹⁾이나 昌德宮²⁾에 한정되었거나, 내용적으로도 正宮으로서의 경복궁과 離宮으로서의 東闕(창덕궁과 창경궁)과 西闕(慶熙宮)을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³⁾. 그리고 지금까지의 궁궐 연구에 있어서는 정궁인 경복궁이 중심의 축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적인 기하학적 구조로 배치되었고, 이궁인 창덕궁과 창경궁, 경희궁은 자연지세에 순응한 유기적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따라서 정궁과 이궁의 구성에 있어서 어떠한 공통적인 특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왕조사회 전체를 통하여 줄곧 유교적 이념을 근거로 하여 지배되고 유지되어온 사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궁과 이궁간의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영논리가 공통적으로 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궁인 경복궁과 이궁인 동궐과 서궐을 대상으로 하여 정궁과 이궁간의 공통적인 구성방법을 외형적 특성에서 보다는 오히려 같은 시대사상 속에서 조영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전각의 형태와 전각명, 상량문 등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궁궐공간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성방법을 외형적인 형태에서 보다는 관념적인 측면에서 찾아 궁궐공간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조영논리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宮闕空間의 構成과 觀念的 內容

1. 數와 形態에 나타난 觀念的 內容

조선시대 궁궐의 중심공간으로서 正殿과 便殿, 寢殿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특징중의 하나는 공통반복적인 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특히 전각의 칸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동양의 數論에서의 數는 그 자체만으로 추출된 개념이 아니고 생성의 과정 속에서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파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같은 기능의 전각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수는 바로 수자체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 수와 관련된 어떤 象과 관련될 수 있다.⁵⁾

1) 이러한 연구중 李康根(1983), “景福宮에 關한 建築史的 考察”,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2) 우동선(1991), “昌德宮의 變遷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3) 조선시대의 정궁과 이궁을 함께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최근의 연구로는 洪順敏(1996), 朝鮮時代 宮闕經營과 兩闕體制的 變遷,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과 陳相喆(1996), “朝鮮時代의 宮闕造景樣式 研究”,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4) 金谷雲, 金谷局 共著(1982), 韓國數學史, 悅話堂, p.21.
 5) 이러한 상수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경복궁의 경희루이다.

이러한 象數的 觀念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정전의 칸수이다. 경복궁 勤政殿, 창덕궁 仁政殿, 창경궁 明政殿, 경희궁 崇政殿 등의 정전의 정면의 칸수는 모두 5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5라는 수는 河圖와 洛書에 있어서 中央의 위치에 해당하며 5가 하도와 낙서를 구성하는 合同式의 法(mod)이다.⁶⁾ 따라서 이러한 5의 수적 의미를 고려하면 정전은 모름지기 궁궐의 중심으로서 다른 전각의 배치에 하나의 ‘법(mod)’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궁궐 침전의 정면의 칸수는 7칸과 9칸의 사용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정궁인 경복궁을 전각구성의 전형으로 본다면 왕의 正寢이 7칸(경복궁 康寧殿, 창경궁의 環慶殿)의 형태를 하고 있고, 왕비의 침전은 9칸의 형태(경복궁 交泰殿, 창덕궁 大造殿 등)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궁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면 칸수의 形式의 명확히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7칸과 9칸이 주요한 정면 칸수로 나타난다. 여기서 분명한 특징은 정전과 편전에 있어서는 3칸이나 5칸이 일반적이었던데 반하여 왕과 왕비의 정침에서는 3칸이나 5칸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각의 기능에 따라 정면 칸수를 의도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 1과 2>에서처럼 河圖에서 7은

남쪽에 위치하고 9는 서쪽에 위치한다. 또한 五行의 위치로서 7은 火, 9는 金에 위치한다.⁷⁾ 여기서 정전이 5로서 土의 위치임을 상징할 때 정전과 왕의 정침, 왕비의 정침간에는 오행의 관계에서 相生의 관계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즉, 火生土, 土生金이다. 화는 왕의 정침이고, 토는 왕의 정전이나 편전, 금은 왕비의 정침의 자리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정전, 편전, 왕정침, 왕비정침의 정면 칸수인 3, 5, 7, 9라는 수는 단순한 칸수의 구분을 넘어서서 정전, 편전, 침전이 상호 相生하기를 바라는 오행적 상생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궁궐의 전각이 가진 형태와 관련하여서 헤겔은 形態와 象徴에 대하여 “상징이란 처음에는 일종의 부호였다. 그러나 단순한 부호 안에서 뜻과 그것의 표현과의 관계는 완전히 임의로 구성된 규합이다. 여기에서 표현되는, 즉 감성사물이나 형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순히 그 자체만 보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래 그것의 외부에 존재했던 내용과 의의를 생각나게 한다……. 예술의 요지는 일반적으로 의미와 형상의 연계와 밀접한 결합에 있다.……”⁸⁾ 형상과 상징적 의미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궁궐의 정전, 편전, 침전의 형태와 상징간의 관계는 전각의 지붕형태로서 용마루의 有

	南 火 (7, 2)	
(8, 3) 東 木	(10, 5) 中央 土	(9, 4) 西 金
	(6, 1) 北 水	

<그림 1> 河圖의 數와 五行의 배치

4	9	2	⇒	4	9	2
3	5	7		3	5	7
8	1	6		8	1	6

<그림 2> 洛書의 數 배치와 合同式

6) 金容雲, 金容局 著, 上揭書, p.26.

7) 五行相生으로 보면 오행의 순서는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土의 순서를 따른다.

8) 柳膺 著, 洪喜 譯(1994), 禮의 정신, 東文選, pp.240~241.

無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궁궐의 모든 전각의 지붕 가장 높은 곳에는 용마루가 설치된다. 그러나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경복궁의 交泰殿, 창덕궁의 大造殿, 集祥殿, 창경궁의 通明殿, 경희궁의 隆福殿과 會祥殿은 용마루가 없는(無樑閣) 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무량각 지붕의 형태를 한 전각의 기능은 王妃나 前王妃(대비나 대왕대비)의 시어소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각에만 유독 무량각 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왕비의 시어소가 곧 왕과 왕비의 合房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하늘(天:왕)과 땅(地:왕비)의 교통에 장애가 되는 용마루를 설치하지 않은 陰陽의 造化를 강조하는 陰陽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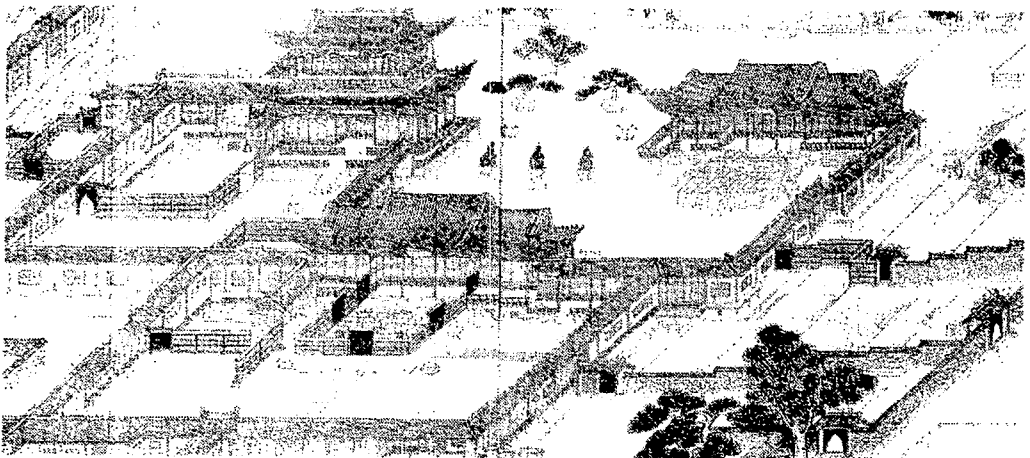
의 관념에 기초한 의도적인 조영형태로 볼 수 있다.

2. 殿閣名에 나타난 構成觀念

《궁궐지》의 정도전이 지은 『景福宮文』에 이르기를 “궁궐이란 인군이 정사를 보는 곳으로 온 나라의 신민들이 모두 우러러 보고 출입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웅장하게 하여 존엄을 보이고 명칭을 아름답게 하여 觀感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 당나라 때부터 궁궐의 이름들을 후 연혁을 찾아 지었다. 그러나 존엄을 보이고 관감이 되도록 하는 의의는 동일하다. (생략)……”⁹⁾. 한편 순조가 친히 지은 『昌德宮銘并序』에는 “……(중략) 옛적 신하가 대

<표 1> 궁궐의 침전과 지붕형태

구분	건물명	지붕형태	관련 기록	비고
경복궁	交泰殿	무량각	왕비의 정침	왕비의 정침
창덕궁	大造殿	무량각	大内の 坤殿의 正堂으로 들보가 없는 집이다. (궁궐지)	왕비의 정침
集祥殿	大造殿	무량각	東北에 있는데, 들보가 없는 지이다. (궁궐지)	전왕비의 시어소
창경궁	通明殿	무량각	창경궁 안의 정전이다. 들보와 누각이 없다. (궁궐지)	왕비의 정침
경희궁	隆福殿	무량각	희상전의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 문은 일영문이다. 남쪽에는 집회전이 있었는데 창덕궁의 집상전을 지을 때 헐고 옮겼다. (궁궐지)	
	會祥殿	무량각	승정전의 동북쪽에 있으니 바로 궁궐의 정전이다. (궁궐지)	



<그림 3> 동궐도에 보이는 대조전과 집상전의 무량각 지붕

부분 殿號로써 임금의 덕을 힘쓰게 하였으니, 전호라는 것이 어찌 금판에 새겨 단청으로 장식하여 한자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도구일 뿐이겠는가¹⁰⁾라거나, 정조가 지은 『慶熙宮誌』에도 “……(중략) 무릇 궁궐이라는 것은 임금이 거처하면서 정치를 하는 곳이고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보고 향하고 있으니 그 제도를 장엄하게 하여 존엄함을 보이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여 경계함을 나타내야지 그 거처를 아름답게 꾸미고 건물을 화려하게 해서는 안된다. (생략)…….”¹¹⁾라고 쓰고 있다. 이렇듯 宮闕名이나 殿閣名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은 조선시대 궁궐의 각종 문명이나 전각명의 명칭부여에 일정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각명의 내용을 통하여 궁궐의 조영의도를 엿볼 수 있다.

(1) 正殿과 便殿의 名稱과 內容

정전은 內殿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써 外殿의 영역에 해당한다.¹²⁾ 정전은 신하들의 朝會를 받거나 왕이 즉위할 때, 또는 세자를 책봉하거나 왕실의 공식적인 의례나 연회를 베풀 때 사용되는 모듬지기 궁궐은 물론 국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상징공간이다. 경복궁의 정전은 勤政殿이고, 창덕궁은 仁政殿, 창경궁은 仁政殿, 경희궁은 崇政殿이다.

정도전은 경복궁의 정전을 근정전이라 불린 이유에 대하여 “……천하의 일들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이에게 묻고, 저녁에는 명령할 일들을 생각하고, 밤이 되어 편안히 쉬는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인군의 부지런함이다.”라고 하여 임

금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純祖가 지은 창덕궁의 『仁政殿銘』에 “저 인정전을 바라보며 仁하면 반드시 興한다는 선왕의 성대한 뜻을 우러러 받든다. 우러러 받든다는 것은 선왕을 본받고자 함이다. 왕도는 우뚝하고 인정전은 드높다. 왕된 자 존귀하고 궁궐 또한 크도다. 인정을 베풀어 전호에 어긋나지 말라. ……(중략) 임금은 仁으로써 신하에게 베풀고 신하는 仁으로써 임금에게 바치면, 정사가 다스려지고 국가가 태평하리라. 태평하고 태평하면 국가가 장구하리니, 이 이름을 지어 마음 속으로 힘쓰려 한다.”라고 한 것처럼 정전의 명칭속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가장 으뜸되는 덕목으로서 ‘부지런함(勤)’과 ‘어짐(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궁궐의 정전, 편전의 전각명과 의미

구분	궁명	전각명	의미
정전	경복궁	勤政殿	임금이 정치를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자기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勤’, ‘仁’, ‘明’, ‘崇’과 ‘思’, ‘宣’, ‘熙’, ‘文’, ‘資’, ‘興’을 강조함
	창덕궁	仁政殿	
	창경궁	明政殿	
편전	경희궁	崇政殿	
	경복궁	思政殿	
	창덕궁	宣政殿	
		熙政堂	
	창경궁	文政殿	
	資政殿		
		興政堂	

이러한 전각명의 내용에 덧붙여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정전의 명칭을 부여할 때 가운데 공식처럼 ‘政’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政’은 정사나 정치를 나타내거나, 전하여 사물을 널리 다스리는 일을 의미한다. 정도전

9) 서울학연구소(1994), 궁궐지 1, 『서울학번역총서 1』, p.12.

10) 서울학연구소(1994), 상계서, p.65.

11) 서울학연구소(1996), 궁궐지 2, 『서울학번역총서 2』, p.84.

12) 조선왕조에서 궁궐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은 《朱禮》의 五門三朝제도 보다는 內殿과 外殿, 그리고 기타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더 보편적이었다고 한다. (洪順敏(1996), 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闕體制의 變遷,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76. 과 朱南哲(1985), “各 殿閣들의 配置”, 『昌德宮 發掘調査報告書』, 문화재관리국, pp.126~1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外殿으로서 正殿, 內殿으로서 便殿과 寢殿의 개념을 사용한다.

에 있어서 '政'은 곧 '正'으로서 '바르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자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 <正己> 또는 <修己>라면 남을 바르게 하는 것이 <正人> <治人>이다.¹³⁾ 궁궐에 있어서 외전의 중심이 되는 전각을 '正殿'으로 이름함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이러한 경우는 위의 <표 2>와 같이 궁궐에 있어서 왕이 정치를 행사하는 정전뿐만 아니라 편전에도 공통되는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즉, 경복궁의 편전인 思政殿¹⁴⁾, 창덕궁의 편전인 宣政殿과 熙政堂¹⁵⁾, 창경궁의 文政殿, 경희궁의 資政殿과 興政堂의 경우가 모두 그러하다.

결국, 정전과 편전의 전각명에 나타나는 내용은 '政'자가 곧 '正'이라는 의미와 관련된 중심성이 내포되어 있고, 이때의 중심은 곧 王이다. 궁궐의 정전이 정면 5칸으로 구성됨도 바로 '正'¹⁶⁾의 개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2) 寢殿의 名稱과 內容

궁궐에 있어서 寢殿은 便殿과 함께 內殿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각이며, 크게 왕의 正寢과 小寢, 왕비나 전 왕비의 時御所를 침전의 공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로볼 때 왕의 침전은 크게 정침과 소침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왕의 정침과 소침의 전형적인 구성을 따른 것은 정궁인 경복궁의 경우이고 나머지 이궁에서의 침전계획에는 차이가 있다.

정궁인 경복궁의 왕의 정침은 康寧殿이고 소침은 延生殿과 慶成殿이다. 정도전이 지은 「康寧殿文」에 이르기를 “신이 살피건대 「洪範·書經의 편명」9편의 오복 가운데 세 번째 것을 '康寧'이라 하였다. 인군이 마음을 정답게 하

고 덕을 닦아 皇極을 세운다면 강령의 복을 누리게 된다. 오복 가운데서도 그 중간의 강령을 든 것은, 나머지 네복은 이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소침인 연생전과 경성전의 文에 “천지의 만물이 봄에 낳고 가을에 익는 것처럼 성인은 仁과 義로써 백성들을 다스린다. 이 때문에 성인이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니, 政令의 배움을 모두 천지의 움직임에 따라야 한다. 동쪽의 소침을 延生, 서쪽의 소침을 慶成이라 하여, 전하의 정령은 천지의 움직임을 따라 시행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는 강령전은 왕의 정침으로서 왕은 곧 하늘을 대신하는 만물의 중심으로서 왕이 정치를 행사하는 방법은 하늘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천지의 움직임에 따라야 한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왕은 하늘을 대신한 중심(皇極)이라는 중심성이 내포되어 있다.

왕비의 시어소로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이 <표 3>에서처럼 경복궁의 交泰殿, 창덕궁의 大造殿, 창경궁의 景春殿과 通明殿, 경희궁의 會祥殿 등이다. 경복궁의 교태전의 '교태'라 함은 陰陽이 서로 통하여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周易》에 의하면 '泰卦'는 육십사괘의 하나로 아래에 乾卦, 위에 坤卦가 있는 형상으로 음양이 조화되어 사물이 서로 통리하는象이라 하였다.¹⁷⁾ 이는 곧 乾下坤上の 괘로 하늘이 아래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괘가 된다. 하늘은 본디 오르려고 하는 속성이고 땅은 본디 아래에 있으려 하는 속성이니 비로서 상하가 통하고 화합되어 만물이 생겨난다.¹⁸⁾ 《周易》에는 “是天地交而 萬物通也 上下交而 其志同也”,

13) 韓永愚(1973), 鄭道傳 思想의 研究, 한국문화연구소, p. 89.

14) 정도전이 지은 경복궁 「思政殿文」에 이르기를 “전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는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인군이다.……(중략) 『書經』에는 “생각이란 것은 밝다는 뜻이니, 밝으면 성인이 된다”고 하였다. 생각이란 사람에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전각은 매일 아침 정사를 보는 곳으로 수없이 닦쳐오는 일들을 전하에게 아뢰면, 전하는 이를 지휘해야 할 것이니 더욱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리하여 신이 「사정전」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15) 순조가 지은 창덕궁 『熙政堂名』에서는 회정당의 당명을 지은 뜻을 “... (생략) 이당을 명명함에 성의가 있으니 편액을 우러러 볼 때 마다 범연히 생각할 수 없다.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은 임금의 덕이라. (중략) 군주가 밝고 강하면 정사가 잘 다스려지고 덕이 닦이리니, 정사가 잘 다스려지고 덕이 닦이면 당명을 생각하리라.” 라고 쓰고 있다.

16) '正'자는 횡수가 5획이다.

17) 허균(1994), 서울의 고궁산책, 도서출판 효림, p. 115.

“天地交泰 后以財成天地之道 補相天地之宜”라 하여 땅의 기운이 하강하고 하늘의 기운이 상승하여 천지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화합함으로써 만물이 생성·성장하고 번영한다는 것이다.

창덕궁의 대조전의 ‘大造’란 ‘큰공’ 또는 ‘위대한 창조’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인간이 조물주의 세계에 한 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녀의 교합에서 열린다. 남녀교합, 즉 음양의 교합은 우주의 근원적 원리이며, 궁극의 세계이다. 그 궁극의 세계에 들어서서 이루어내는 ‘큰 공’이나 ‘위대한 창조’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지혜롭고 현명한 왕자의 생산을 두고 한 말이다.¹⁹⁾ 또한 창경궁의 왕비의 시어소인 통명전은 ‘明’이란 하늘의 밝음, 즉 日月의 밝음을 가리킨다. 해는 陽이요 달은 陰이기 때문에, ‘通明’은 陰과 陽이 서로 통함을 뜻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通’은 ‘爻’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창경궁의 경춘전은 《궁궐지》에 이르기를 “景이라 하니, 경이란 큰 것이요, 춘이라 하니, 춘이란 장수함이다. 고금에 걸쳐 축복하는 말이다. 크지 않는 바가 없도다! 하늘의 으뜸은 임

금의 덕이요, 8천년의 봄이니 임금의 장수로다. 이름을 얻고, 지위를 얻으며, 장수함을 얻어, 임금의 도모함을 앗아서 이루었다.”라고 하였다. 또 경희궁의 會祥殿에 대하여 쓰기를 “커다란 운이 트여 많이 모이고 큰 즐거움이 이르니 길이 퍼지는 상서로움이 더욱 넘쳤다. 여기에 퍼지고 곳곳에서 따르니 지금까지 계속되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세조 7년 12월 19일(을유)에 창덕궁의 正殿을 兩儀殿으로 명명하고 동침실을 麗日殿, 서침실을 淨月殿이라 명명한 사실²¹⁾은 창덕궁에 있어서도 경복궁과 같이 연침과 소침의 제도가 적용되었던 흔적을 보여준다. 그리고 명칭에 있어서도 음양적 관념에 기초하여 정침을 양의전, 소침을 경복궁의 경성전과 연생전의 ‘生成’과 같은 음양론적 의미의 ‘日月’에 대응시켜 조성한 사실은 침전의 명칭에 있어서 음양론적 관념이 깊이 내재해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전각명과 주요시설들의 명명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전과 편전은 그 사용 주체자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갖추어야할

〈표 3〉 궁궐의 침전명과 의미

궁궐	구분	전각명	의미
경복궁	왕의 정침	康寧殿	중심성, 복
	왕의 소침	延生殿, 慶成殿	정령은 천지의 움직임을 따름
	왕비의 정침	交泰殿	음양의 조화
창덕궁	왕의 정침	세조시 兩儀殿(이후 없어짐)	음양의 조화
	왕의 소침	세조시 麗日殿, 淨月殿(이후 없어짐)	일월을 함육
	왕비의 침전	大造殿	음양의 조화
창경궁	왕의 정침	歡慶殿	크게 기뻐함
	왕의 소침	없음	
	왕비의 침전	景春殿, 通明殿	크게 장수함, 밝음, 일월을 교합
경희궁	왕의 정침	隆福殿	복을 응성함
	왕의 소침	없음	
	왕비의 침전	會祥殿	상서로움을 모임

18) 李元教(1993), 傳統建築의 配置에 대한 地理體系的 解釋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p. 203.

19) 허균(1994), 前揭書, p. 116.

20) 허균(1994), 上揭書, p. 116.

21) 《世朝實錄》권 26, 세조 7년 12월 19일 을유, 7-503.1

傳于禮曹曰 昌德宮朝啓廳稱宣政殿 後東別室稱昭德堂 後西別室稱寶慶堂 正殿稱兩儀殿 東寢室稱麗日殿 西寢室稱淨月殿 樓稱澄光樓 東別室稱凝福亭 西別室稱玉華堂 樓下稱光世殿·廣延殿 別室稱求賢殿.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라의 중심인 왕을 통하여 이러한 덕목이 온나라에 널리 미치기를 바라는 ‘중심성’의 관념적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침전에 있어서 왕의 정침은 중심성의 내용을 왕과 왕비의 합방이 이루어지는 왕비의 침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음양이 교화되고 결합되기를 희구하는 ‘음양론’적 관념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Ⅲ. 宮闕空間의 觀念的 構成

1. 宮闕空間의 陰陽五行的 構成

(1) 正殿과 便殿一郭의 構成

조선시대 궁궐의 구성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정전과 편전을 중심으로한 좌우 대칭적 구성과 중심과 사방위적인 오행적 구성이다. 이는 경복궁은 물론 이궁에 있어서도 공간적으로 중심과 좌우대칭, 중심과 사방위적 배치보다는 오히려 관념적인 측면에서 殿閣名이나 門名 등에 상대적인 쌍을 사용하거나 오행적 개념에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정궁인 경복궁에 있어서 정전인 勤政殿 일곽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근정전의 前門인 勤政門 좌우에 日華門과 月華門, 勤政殿 좌우의 門樓인 隆文樓와 隆武樓, 啓仁門과 協義門이 근정문과 근정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공간적으로 대칭적으로 배치된 것은 물론 그 명칭에 있어서도 ‘日月’(日화문, 月화문), ‘文武’(음文武, 음文武), ‘仁義’(계仁문, 협義문)와 같이 상대적인 쌍을 이루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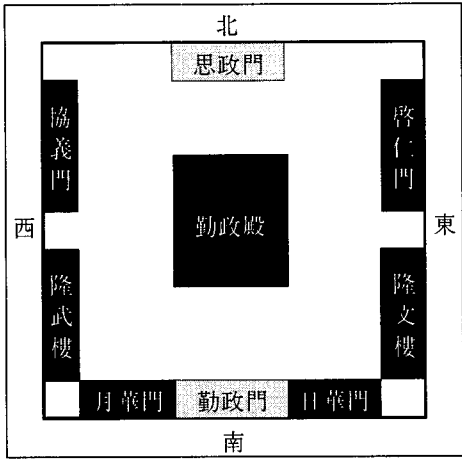
한편, 이와 같은 상호 대칭적인 명칭의 사용은 이궁인 창덕궁과 경희궁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덕궁과 경희궁의 정전과 편전일곽

의 구성은 경복궁처럼 주변 전각이나 문의 구성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기하학적인 좌우대칭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칭적, 오행적 구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의 <그림 5>의 仁政殿의 좌우에 ‘光範門’, ‘崇範門’이라는 상호 대칭적인 문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림 6>의 경희궁의 정전인 승정전의 ‘麗春門’, ‘宜秋門’도 ‘春秋’라는 명칭을 통하여 정전을 중심에 둔 대칭적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경궁에 있어서는 <그림 7>과 같이 전각의 배치는 물론 전각명에서도 ‘永淸’, ‘光政’ 등으로 명명하고 있어 대칭적 門名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예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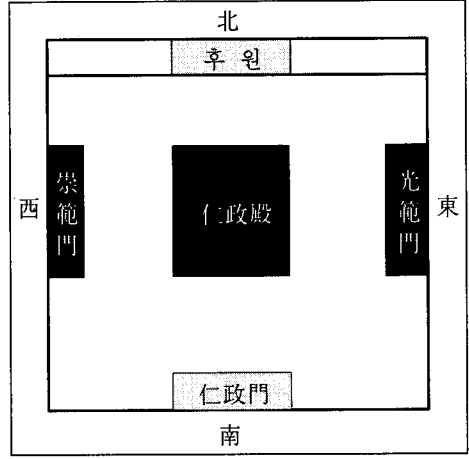
또 便殿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각이나 문에 있어서 공간적 배치와 전각명이나 문명의 내용에 대칭적, 오행적 관념이 나타나는데, 경복궁 思政殿의 前門인 思政門 좌우의 ‘思賢門’과 ‘崇賢門’, 사정전 좌우의 ‘萬春殿’과 ‘千秋殿’ 등의 경우는 ‘思賢’과 ‘崇賢’, ‘春秋’라는 대칭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춘추라는 대칭적인 쌍은 五行論의 ‘四季’ 중 ‘春秋’의 명칭을 동쪽과 서쪽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창덕궁의 편전에 있어서 대칭적, 오행적 구성과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주변의 구성이 ‘五常’에 해당하는 ‘仁義禮智信’ 중 ‘仁和門(仁)’과 ‘制義門(義)’등과 같이 주변의 문명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오행적 관념과 관련된 구성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전과 편전 일곽에 나타나는 대칭적, 오행적 측면에서의 관념적 구성은 하나의 궐내가 아니라 멀리 거리가 떨어져 조성된 이공간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구성방식임을 알 수 있다. 창경궁에는 崇文堂이 있고 경희궁에는 隆武堂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²²⁾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정전과 편전일곽의 구성에는 공간적인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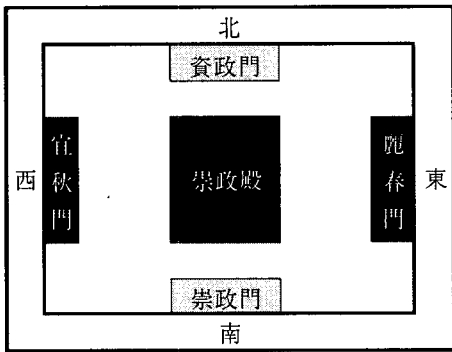
22) 숙종이 지은 「隆武堂」이라는 시에 이르기를 “.....(생략) 무릇 정치를 이루고 난을 다스리는 것은 문무에 있다. 문무를 다함께 쓰는 것은 나라를 오래도록 다스리는 방법이다. 문무에서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마치 새의 양날개와 같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옛날에 우리 선왕께서 이미 승문이라는 이름을 창경궁의 각에 걸었고 지금은 내가 계속해서 응무라는 이름으로 경덕궁의 당 이름을 고쳤다. 동쪽과 서쪽이 서로 마주하고 두 개의 아름다움이 다함께 있으니 그 취한 뜻이 어찌 우연이겠는가.....”라고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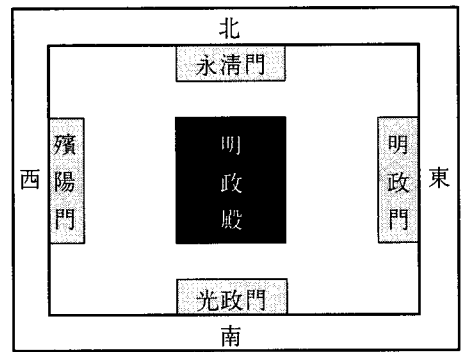
<그림 4> 경복궁 근정전 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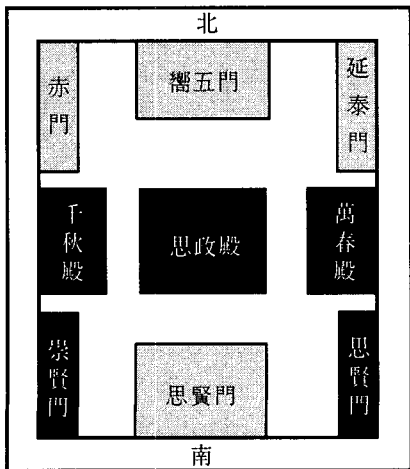
<그림 5> 창덕궁 인정전 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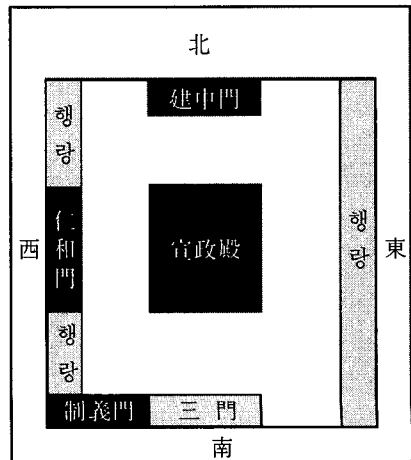
<그림 6> 경희궁 승정전 일곽



<그림 7> 창덕궁 명정전 일곽



<그림 8> 경복궁 사정전 일곽



<그림 9> 창덕궁 선정전 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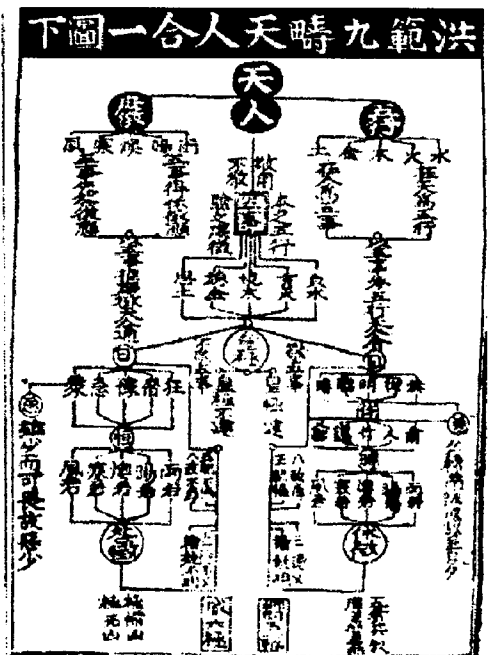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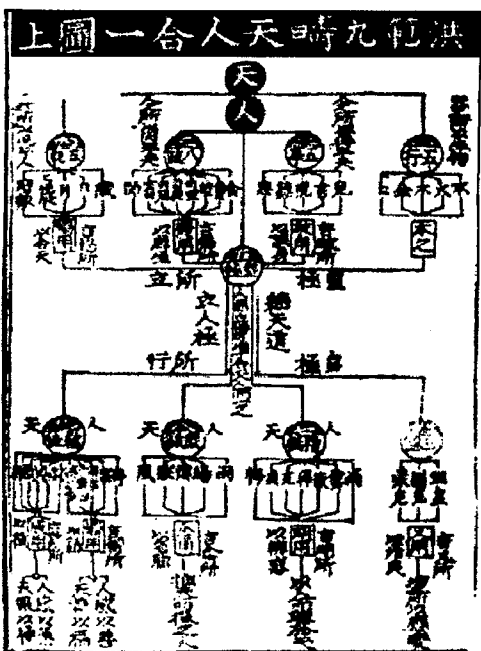
치에 있어서는 물론 관념적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정궁과 이궁에 공통적으로 대칭적, 오행적 구성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2) 침전일곽의 구성

경복궁의 왕의 정침인 강령전의 ‘康寧’은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으로서의 ‘洪範九疇’ 중 壽, 富, 康寧, 德, 考終命의 5가지의 복된일 중 3번째로서 바로 건강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강령전 일곽의 구성을 살펴볼 때 눈여겨볼 것이 ‘嚮五門’의 ‘嚮五’이다. 여기서의 ‘嚮五’란 명칭은 <그림 10>의 權近의 <洪範九疇天人合一圖>에서 나오는 ‘嚮五福’에서 찾을 수 있다. 권근의 홍범구주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늘과 임금과 백성을 수직적인 주종의 개념으로 드러내어, 그 속에서 임금의 治德을 설명하고 있다. 권근의 두 홍범도 중 圖上에서는 임금이 하늘의 命을 받아 어떻

게 皇極을 세울 것이며, 황극이 세워진 다음에는 어떻게 사용(統治)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圖下에서는 그 방법론을 내용속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五事를 중시(敬)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 五行을 따르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황극이 서고 五福을 누리는 것이오(嚮五福),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황극이 서지 않고 六極을 입게 된다(威六極)는 것이다.²³⁾

조선의 개국에 정도전과 함께 중요한 이론 및 사상가로 조선의 국가적 기틀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권근임을 감안한다면 강령전 일곽의 구성은 ‘강령’, ‘향오’라는 명칭에서 <洪範九疇天人合一圖>의 내용에 근거한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그림 11>에서처럼 강령전 주변에 ‘延吉堂’, ‘膺趾堂’, ‘延生殿’, ‘慶生殿’의 4개의 전각을 배치하여 강령전을 포함한 5채의 건물은 五行(五事)의 개념에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0> 권근이 해석한 홍범사상의 구조인 「홍범구주천인합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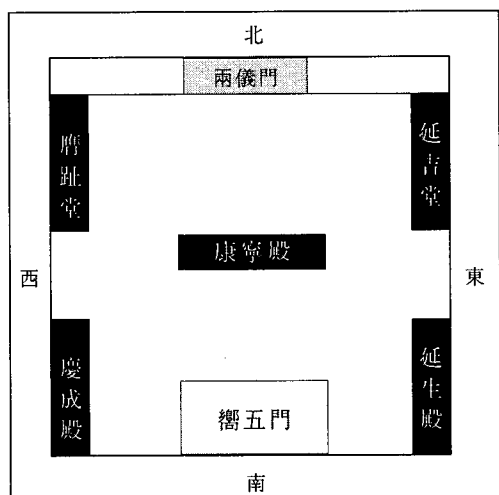
23) 權近 著 · 權德周 譯, 入學圖說, pp.202~203.

24) 야마다게이지 著, 박성환 譯(1994), 중국과학의 사상적 풍토, 전파과학사, pp.290~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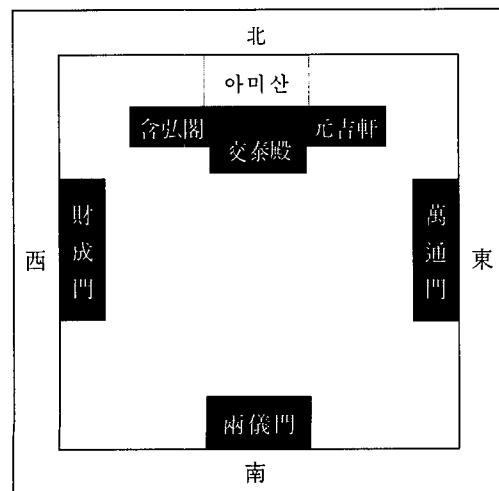
경복궁 왕비의 정침인 交泰殿의 ‘交泰’는 ‘太를 交함’이며 즉, ‘太極을 交함’이다. 또한 교태전 남문의 명칭인 ‘兩儀’는 바로 ‘陰陽’을 뜻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명칭들을 통하여 볼 때 교태전 일곽은 ‘太極이 陰陽’을 낳는다’는 ‘太極圖說’과 깊은 관련이 있는 구성으로 해석된다. 성리학적 우주관을 도식적으로 요약하여 그린 그림으로서 태극도설은 『易』繫辭傳에 이르기를 “易에 太極이 있고, 이것이 兩儀를 낳는다. 양의는 四象을 낳고, 四象은

八卦를 낳는다”고 했다. 太極은 원초적인 미분화의 세계, 兩儀는 天地, 따라서 上下, 四象은 4계절, 따라서 4方, 八卦는 8方이다.²⁴⁾ 결국, <그림 12>에 보이는 교태전에서 양의문에 이르는 왕비의 침전구역은 ‘태극이(교태전) 만물을 통하고(萬通門) 잘 재단하여(財成門) 음양을 낳는다(兩儀門)는 내용으로 ‘태극도설’의 태극이 음양을 낳고, 양의는 사상, 팔괘를 낳는다는 ‘태극도설’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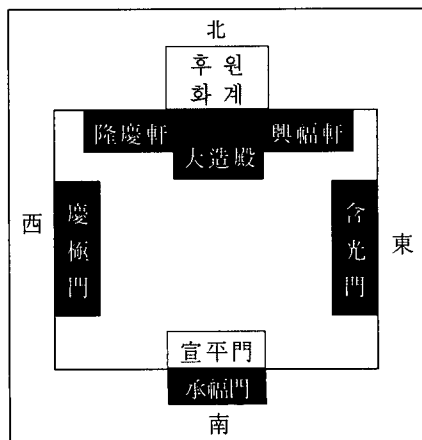
창덕궁의 왕비의 침전인 대조전의 경우도 음양적 개념의 구성이다. ‘大造’의 내용이 천지가 교합하여 왕세자를 생산한다는 음양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위의 전각이나 門名도 이러한 내용을 보조하고 있다. <그림 13>의 동쪽의 문인 ‘含光門’은 ‘곧 빛을 함유한다’는 것으로 여기서의 빛이란 바로 王을 의미한다. 또한 이 지역이 탄생과 생산의 의미와 여자의 공간임을 알게 하는 문명을 주변에 사용하고 있다. 동쪽에 위치한 萬春門과 麗春門, 여기에 잇대어 있는 翠華門, 翠美門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물을 생성케하는 계절인 ‘봄’의 사용과 ‘취미’, ‘취화’ 등 정전과 편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여성적인 이미지의 명칭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11> 경복궁 강령전 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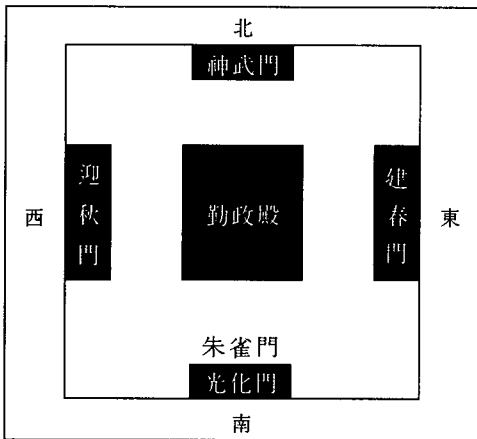
<그림 2-12> 경복궁 교태전 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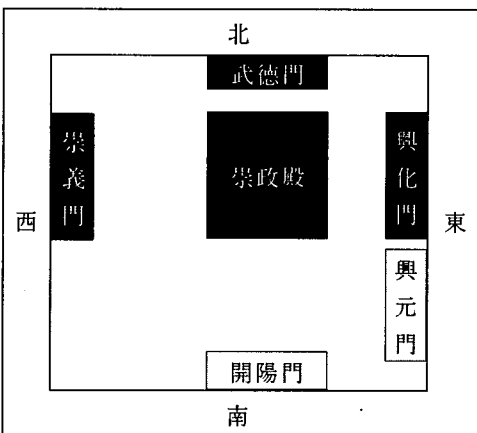
<그림 13> 창덕궁 대조전 일곽

(3) 宮城門의 構成

궁궐의 전체 경계를 이루는 궁성문의 배치와 문명의 내용을 살펴볼 때 나타나는 공통점은 정문에 있어서 ‘化’자의 사용이다. 경복궁의 정문인 ‘光化門’, 창덕궁의 정문인 ‘敦化門’, 창경궁의 ‘弘化門’, 경희궁의 ‘興化門’이 모두 그렇다. 광화문은 ‘光被四表化及萬方’이라 하여, 곧 빛이 나라 밖 사방을 덮고, 교화가 만방에 미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의 문도 ‘돈독함(敦化門)’, ‘넓은 덕(弘化門)’, ‘성함(興化門)’과 같이 교화가 널리 미치기를 바라는 기원적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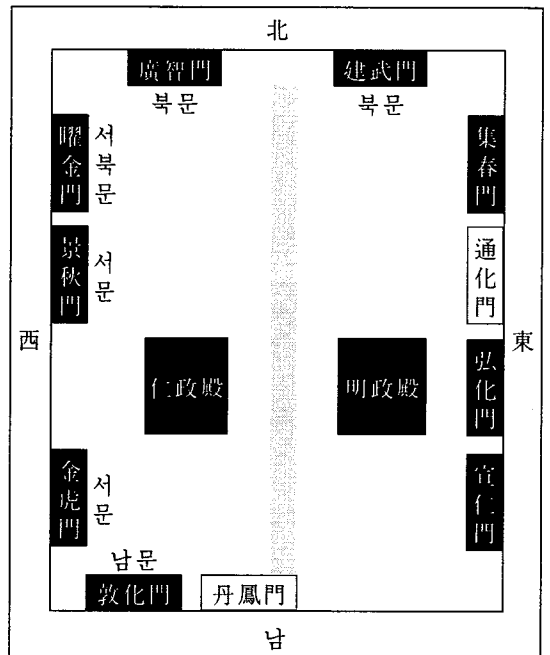


〈그림 14〉 경복궁 궁성문의 구성



〈그림 15〉 경희궁 궁성문의 구성

궁성문의 명칭을 보면 공통적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바로 ‘五行’이나 ‘五常’과 관련되는 명칭들이다. 〈그림 14〉의 경복궁의 경우를 보면 동쪽의 문을 ‘建春門(春)’, 서쪽의 문을 ‘迎秋門(秋)’이라 하여 ‘春秋’와 관련시켜 놓고 있으며, 북문을 ‘神武門(武)’이라 하여 四神沙중 ‘玄武’의 개념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담고 있다. 〈그림 16〉의 창덕궁·창경궁의 경우는 동쪽 문에 ‘集春門’, ‘宣仁門’, 서쪽에 위치한 문을 ‘金虎門’, ‘曜金門’, ‘景秋門’, 북문을 ‘廣智門’, ‘建武門’이라 하였다. 〈그림 15〉의 경희궁에서도 북쪽의 문을 武德門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문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春, 仁, 金, 秋, 武, 智’ 등의 명칭은 五行, 五常, 四季, 四神沙, 五色, 五方位 등과 같은 오행적 내용과 관련을 갖는다. 이를 오행의 개념과 관련시켜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결국, 궁궐의 경계를 이루는 궁성문의 명칭에는 경복궁이 중심이 사방위의 위치에 따른 궁문을 물리적인 공간에 배치함은 물론 궁성문의 명칭에 있어서도 오행 및 오상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그림 16〉 창덕궁·창경궁 궁성문의 구성

문명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이궁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배치에 있어서 사방위의 절대방위에 따른 동서남북문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오행과 관련된 오상, 계절, 동물과 같은 관념적 내용을 문명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 4〉 오행과 오상, 궁문명의 비교표

五行 五常	木 仁	火 禮	土	金 義	水 智	관련내용
方位 季節 색깔 動物	東 春 青 靑龍	南 夏 赤 朱雀	信 중앙	西 秋 白 白虎	北 冬 玄(黑) 玄武	
궁문	경복궁 건춘문	홍禧문 (午門)		영秋문	신武문	계절과 오상의 개념
	창덕궁			요金門 金호문	광智문	오상과 오행, 동물의 개념
	창경궁 집춘문 선仁문			건武문		계절과 오상의 개념
	경희궁				武덕문	동물의 오행
도성문	홍仁(仁)문	송禮문	보信각	돈義門	수智(智)문	오상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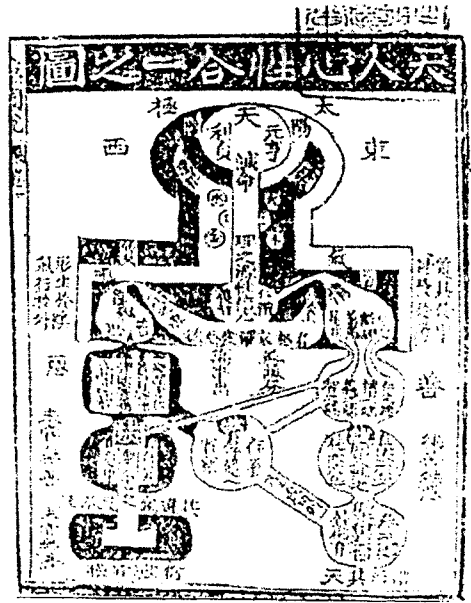
2. 宮闕空間의 合一의 構成

조선시대의 정궁인 경복궁의 중심공간의 구성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창건 경복궁의 계획을 주도한 정도전의 사상적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²⁵⁾이고, 다른 하나는 권근의 철학사상에서 해석하는 것이다.²⁶⁾

권근의 철학사상은 그의 《入學圖說》에 집약

되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天人心性合一圖〉, 〈天人心性分釋之圖〉, 〈大學指掌之圖〉 및 〈中首章分釋之圖〉 등은 그의 철학사상의 요체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설적 내용이 경복궁의 중심전각의 구성과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인심성합일지도〉와 위에서 설명한 〈홍범구주합일지도〉이다.

먼저 〈천인심성합일지도〉는 周濂溪의 〈太極圖〉와 朱子の 中庸章句²⁷⁾의 설에 따라서 사람의 心性의 善惡과 그 유래로서의 理氣를 밝힌 것이



〈그림 17〉 권근이 제시한 천인심성합일지도

25) 먼저, 경복궁의 창건을 주도한 정도전은 우주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기본원리를 程朱理學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性理哲學」으로 일컫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과 사물이 생겨나되 무궁한 것은, 곧 천지의 변화가 운행을 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 太極에는 動靜이 있어 陰陽이 생겨나고 음양에는 변함이 있어 五行이 갖추어지며, 이에 無極 太極의 眞과 陰陽五行의 精이 묘합하되 응결해서 인간과 사물이 생겨나고 생겨나는 것이다(鄭道傳, 『三峯集』, 卷五, 佛氏雜辯, 佛氏輪廻之辯). 그리고 “생각컨대 천지만물이 아직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태극이 있고 천지만 물의 理가 이미 혼연히 그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太極이 兩儀를 생하고 양의가 四象을 생한다고 한 것이다. 수만 가지 변화가 모두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상세서, 同卷, 佛氏眞假之辯)라고 한 그의 관념은 바로 왕비의 정침 교태전에서 편진인 사정전까지의 전각배치를 해석하는 단서로 볼 수 있다. 즉, 太極(교태전)이 兩儀(兩儀門)를 생(강령전 주변의 延生殿과 慶成殿)하고, 양의가 四象(강령전 주변의 전각 4채)을 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26) 이강근은 그의 논문(경복궁에 관한 건축사적 고찰(1983), pp.54~58)에서 ‘康寧殿’의 명칭이 ‘洪範九疇’의 내용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복궁 중심일곽의 배치가 〈洪範九疇天人合一之圖〉에 근거한 도설적 배치임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권근의 〈홍범구주합일지도〉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구성되어 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27) 중용 책을 주자가 장구를 분류하여 해설한 것임.

〈그림 18〉 경복궁 중심축선상의 주요 전각의 합일적 구성원리

경복궁 중심축선상의 배치		구 성 내 용	
		권근의〈天人心性合一之圖〉	정도전의『性理哲學』
	<p>北</p> <p>交泰殿</p> <p>兩儀門</p> <p>康寧殿</p> <p>嚮五門</p> <p>思政殿</p> <p>思政門</p> <p>勤政殿</p> <p>弘禮門</p> <p>西</p> <p>財成門</p> <p>膺趾堂</p> <p>慶成殿</p> <p>赤門</p> <p>千秋殿</p> <p>崇賢門</p> <p>協義門</p> <p>隆武樓</p> <p>東</p> <p>萬通門</p> <p>延吉堂</p> <p>延生殿</p> <p>延泰門</p> <p>萬春殿</p> <p>思賢門</p> <p>啓仁門</p> <p>隆文樓</p> <p>月華門</p> <p>勤政門</p> <p>日華門</p>	<p>권근의〈天人心性合一之圖〉</p> <p>천도로서 太極(交泰殿)과 음양(兩儀殿)이 위치함(제일층에 속하는 원형이정의 사택이 위치)</p> <p>홍범구주합일지도의 五行과 五事가 잘되면 五福을 누린다. 강령전을 중심으로 한 다섯채의 전각은 오행을 상징, 오복을 향유한다는 嚮五門을 상징)</p> <p>天道의 元亨利貞 사택이 순환하므로 사시 春夏秋冬 (만춘전과 천추전)도 끊임없이 순환함</p> <p>이러한 天道의 四德이 四時의 운행에 의하여 人道의 사택(인의예지; 계仁문, 협義문, 홍禮문)으로 합일함</p>	<p>정도전의『性理哲學』</p> <p>태극(교태전)이 양의(양의문)를 생(만통문과 재성문의 생성)함</p> <p>양의(양의문)가 사상(응지당, 연결당, 연생전, 경성전의 4채), 사상이 팔괘(양의문 밖의 왕의 침전과 편전의 건물수 8채:응지당, 연결당, 연생전, 경성전, 강령전, 사정전, 만춘전, 천추전)를 낳음</p>

다.²⁸⁾ 이 도해에서 주렴계의 태극도설의 음양오행의 배치가 상반되는 것 말고 전체의 모양이 인간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우주의 존재원리 보다 인간의 심성원리의 도식화에 관심이 깊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렴계도와 비교할 때 태극도가 존재의 생성과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대해서 천인심성합일도는 인간의 존재 양상과 실천수양론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²⁹⁾ 이 圖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을 갖고 있으며, 六層을 이루고 있다. 제육상층은 머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太極과 陰陽을 합한 것이며, 제오층은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五行의 층, 제사층은 胴體의 上部로서 小生心의 층, 제삼층은 동체의 하부로서 善惡의 층, 제이층은 엉덩이로서 誠敬欲의 층, 제일하층은 양다리로서 人獸의 층이다.³⁰⁾

권근에 의하면 天命(天道)은 심원하여 元亨利貞³¹⁾의 四德이 끊임없이 유행하여 순환을 계속함으로 春夏秋冬 四時가 한 순간도 정지함이 없이 순환반복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은 천도의 원형이정 사덕을 춘하추동 사시와 인도의 仁義禮智 사덕에 배열하고 있다. 즉 천도 곧 원형이정의 理는 춘하추동 四時로 유행하여 순환반복을 계속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의예지의 四德이 된다는 뜻이다. 즉, 이것이 天道와 人道의 완전한 合一의 근거인 것이다.³²⁾

이러한 <천인심성합일도>의 내용을 토대로 위의 <그림 18>을 살펴보면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³³⁾과 전문인 양의문³⁴⁾, 그리고 왕의 정침인 강령전 주위 전각인 연생전과 경성전의 '生成'은 도설에서 머리 즉 天道로서 陰陽을 의미하고, 便殿인 사정전의 좌우에 위치한 萬春殿과 千秋殿의 '춘추'는 바로 四時 春夏秋冬이

순환반복함을 나타내고, 정전인 근정전을 중심으로한 좌우 문명으로서 啓仁門과 協義門의 '인의'와 근정문의 남문인 弘禮門의 '禮'는 天道의 元亨利貞 四德이 人道의 사덕인 '仁義禮智'로 나타난 것중 문명에 '仁義禮'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경복궁의 침전과 편전, 정전의 중심부는 왕비 침전을 중심으로한 天道와 정전을 중심으로한 人道가 편전의 四時의 순환을 통하여 天人이 合一하기를 바라는 <천인심성합일지도>의 도설적 내용을 근거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는 天道와 人道의 완전한 合一을 또는 天道의 陰陽이(交泰殿, 兩儀門)이 四時(春夏秋冬; 萬春殿, 千秋殿)를 통하여 五常(仁義禮智)인 : 啓仁門, 協義門, 弘禮門)이 合一되기를 기원하는 陰陽五行의 合一性을 추구하고 있는 '天道와 人道의 合一', '陰陽과 五行의 合一'을 관념적으로 회구하고 있는 구성을 보여준다.

IV. 結論

조선시대 정궁과 이궁으로서 동궐과 서궐로 대표되는 궁궐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서는 정궁과 이궁간의 뚜렷한 외형적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그 공간구성에 있어서 관련성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사상속에서 조성된 궁궐의 구성에는 어떤 공통적인 조영논리가 내재할 수도 있다는 전제속에서 출발하였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정궁과 이궁의 외형적 구성의 차이에

28) 都光淳 편(1989), 權陽村思想의 研究, 敎文社, pp.231~232.

29) 상계서, pp.226~227.

30) 상계서, p.232.

31) 元은 크다는 것이며, 亨은 발전을 의미하며, 理는 순조로움을 의미하며, 貞은 굳게 지켜 함부로 동요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마광수(1986), "周易의 象徵體系研究", 『연세대 인문과학』 제 55집.

32) 상계서, p.237.

33) 내용적으로 태극을 교함을 의미.

34) 음과 양을 의미.

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궁(북궐)과 이궁으로서 동궐과 서궐은 전각명이나 문명 등에 담겨진 관념적 내용을 통하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外形보다는 內容이라는 측면에서 정궁과 이궁이 모두 관념적 내용에 기초한 구성을 하고 있을 것이란 추정을 가능케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공통적인 관념적 내용은 전각의 형태와 전각명 등과 같은 것을 분석함으로써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관념적 내용은 음양론에 기초한 '對稱的' 구성과 오행론에 기초한 '五行的' 구성이 궁궐공간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궁인 경복궁에 있어서는 이러한 명칭의 사용이 보다 직접적이었던데 반하여 이궁에 있어서는 다소 간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러한 陰陽五行의 관념적 구성은 경복궁 중심공간의 구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天人合一', '天道와 人道의 合一', '陰陽五行의 合一'이라는 '合一的 構成'과 관련된 공통적인 구성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음양론의 음양은 항상 상대적 이항관계이지만, 이것은 또한 相補의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궁궐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쌍들이 대칭적 구성을 하고 나타나지만 내용적으로는 항상 조화되고 보완적인 관계인 상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념은 자연물을 논할 때는 '天地', '日月', '魚水' 등의 쌍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男女', '夫婦', '君臣', '父子'로, 유교적 통치수단으로는 '文武', '仁義', '生成' 등의 개념으로 표상된다. 또한 오행론의 관념은 五方位(前後左右中心), 五常(仁義禮智信)이나 四季(四時:春夏秋冬), 四神沙(靑龍, 白虎, 朱雀, 玄武), 五色(靑, 白, 朱, 赤, 黃) 등의 내용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오행론은 음양의 動靜에 따라 생성되는 다섯 개의 요소가 공간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체가 순환하는 '相生的' 관계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음양오행론에 기초한 궁궐공간의 1차적인 관념적 구성의 내용은 음양오행의 조화, 즉, 음양의 상보와 오행의 상생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궁

극적으로는 음양이 조화되고 합일되기를 바라는 '합일적 구성'이라는 관념적 내용에서 정궁과 이궁의 공통적인 관념적 구성의 일단을 발견할 수 있다.

- 引用 및 參考文獻 -

• 史料

- 《景福宮誌》1책 (규고 5120~32).
- 《宮闕志》현종연간(1834·1849), (규 3950).
- 《宮闕志》현종연간, (규 11521), (서울학번역총서 1, 2, 1994, 1995).
- 《三才圖會》107책, 萬曆 37년(1609), (규중 2888).
- 《西闕營建都監儀軌》순조32(1832), (규14350~14352).
- 《增補文獻備考》음희 2년(1908), (한국학진흥원 영인본).
- 《東闕圖形》1장 (규 9980).
- 《北闕圖形》1장 (규 9978).
- 《北闕後苑圖形》1장 (규 9979).
- 《西闕圖案》고대박물관.

• 著書

- 賀業鉅 著, 윤정순 譯(1995), 중국 도성제도의 이론. 이희출판사.
- 國土開發研究院(1982), 周禮考工記(抄), 국토개발연구원.
- 權近 著·權德周 譯(1990), 入學圖說.
- 金容雲, 金容局 共著(1982), 韓國數學史, 영화당.
- 都堯淳 編, 權陽村思想의 研究, 敎文社.
- 米田美代治 著, 신영훈 譯(1976), 朝鮮上代의 建築, 東山文化社.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65), 서울특별사, 서울특별시.
- _____(1972), 서울通史 上·下, 서울특별시.
- _____(1972), 서울특별사 『古蹟編』, 서울특별시.
- _____(1977), 서울六百年史 1-5권, 서울특별시.
- _____(1987), 서울六百年史 『文化古蹟編』, 서울특별시.
- 서울학연구소(1994), 궁궐지 1, 『서울학번역총서 1』, 서울학연구소.
- _____(1994), 사진과 모형으로 본 100년전의 서울, 서울학연구소.
- _____(1994), 서울학문헌목록집, 서울학연구소.
- _____(1996), 궁궐지 2, 『서울학번역총서 2』, 서울학연구소.
- _____(1996), 조선왕조실록중 서울관련기사색인, 서울시립대학교.
- 柳本藝 著, 權泰益 譯(1975), 漢京圖略, 探究堂.

- 柳肅 著, 洪喜 譯(1994), 禮의 정신, 동문선.
- 李康根(1993), 한국의 궁궐, 대원사.
- 한국조경학회(1996), 東洋造景史, 문운당.
- 韓永愚(1973), 鄭道傳 思想의 研究, 한국문화연구소.
- 허균(1994), 서울의 고궁산책, 도서출판 효림.
- 洪順敏(1994), 역사기행 서울궁궐, 서울학연구소. 論文
- 손신영(1995), “東闕圖를 통해 본 昌德宮의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동선(1991), “창덕궁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李康根(1983), “景福宮에 關한 建築史的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元教(1993), “傳統建築의 配置에 對한 地理體系的 解釋에 關한 研究”,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논문.
- 主남철(1985), “各殿閣들과 配置”, 『昌慶宮發掘調查報告書』, 문화재관리국.
- 陳相喆(1996), “朝鮮時代의 宮闕造景樣式 研究”,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 洪順敏(1996), “朝鮮王朝 宮闕經營과 兩闕體制的 變遷”,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